

월요광장

통찰의 인문학과 스스로 눈을 뜨는 것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나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을 돕는 것이지 입을 헤뜨게 놀리는 일을 돕자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뛰어난 서양 미술사가인 곰브리치가 그 유명한 저서 ‘서양 미술사’의 서문에 쓴 것이다.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는 이 문장은 그럼에도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게 한다.

곰브리치는 왜 이런 말을 굳이 서문에 남긴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이 쓴 책이 미술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오히려 ‘철학은 지식과 속물근성’을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책이 어설픈 지식 자랑과 뜻도 모르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채져 있게 말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염려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좋은 책은 알팍한 지식을 수집하는 속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발견의 항해’를 떠나는 용기

있는 여행자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누군가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곰브리치가 말하는 그 ‘눈’을 반드시 뜨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책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눈을 떠야 하기 때문이다. 곰브리치에 의하면 ‘눈을 뜨는 것’과 ‘입을 헤뜨게 놀리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은 입을 헤뜨게 놀리는 일이 없고, 입이 헤픈 사람은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을 뜨는 것은 신체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과 사물의 현상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배후를 통찰하고 숨겨진 의미를 읽어 내는 눈을 말한다. 나가서 세상을 향한 그러한 통찰을 자신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로 바꿔 내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지위와 학식 또는 재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을 갠갖고 해픈 입만 넘쳐 나는 것을 쉽게 본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은 해픈 입이 대단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물근성에 대한 곰브리치의 지적은 비단 미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문학에 관해서 ‘해픈 입’의 문제는 염려스러울 정도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학 밖에서 시작된 인문학 열풍은 이제 하나의 패션·유행이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유행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유행 그 자체이다. 인문학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문학은 많은 다른 사람이 입으면 자신도 입어야 하는 유행하는 ‘옷’이 되고 말았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소비해야 하는 품목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인문학이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기 성숙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 역시 곰브리치가 말한 ‘눈을 뜨고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인문학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을 돕기보다는 대신 생각하고, 대신 고민하고, 대신 판단해 주는 일에 열심이다.

심지어는 인문학 학자가 온갖 인생 고민을 상담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한바탕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법’까지 알려 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가짜이나 운전자부터 출산까지 모든 것이 ‘대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요즘에, 인문학마저 대리기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인문학이 삶의 모든 문제를 대리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학 안의 인문학이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대중은 밖에서 인문학을 살려 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긴 인문학 열풍은 눈보다는 입을 만

족시키는 ‘쉽고 친절할 인문학’이라는 유행 상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삶이 그렇듯이, 스스로 눈을 뜨는 힘든 노동이 없는 인문학은 이쁜이뿐인 공허한 것이며, 누구에게나 쉽고 친절할 인문학은 해픈 입을 위한 토막 난 몇 마디 말을 남길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인문학은 스스로 해픈 입이 되어서, 새로운 해픈 입을 다시 양산하는 기계가 되어 버린 것인가? 또는 진열대에서 사라지는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배반하며 민망한 호객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만 다행으로 그렇지 않다. 소수이지만 여전히 인문정신의 회복과 인문적 가치의 확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인문학의 힘은 종속과 굴종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상품 진열대 밖에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일이 비록 느릴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상품을 위한 진열대 위에서는 삶의 의미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눈을 뜰 것인가, 해픈 입을 놀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문학의 지평을 넘어서,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과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선택이 된다. 2016년, 한 해를 ‘통찰의 눈은 뜨고 해픈 입은 다무는 해’가 되게 하는 것은 유명한 저자의 두꺼운 책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다.

법조칼럼

통일한국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최 형 주 변호사

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북구협의회 인권법제위원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한층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철조상 등의 단어가 생겨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경제도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고 우울한 신조어들이 생성되는 현상들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경제적 효과를 첫 손꼽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상상 이상의 풍부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금 매장량은 남한의 15.8배, 은은 남한보다 4배 더 많다. 최첨단 산업의 핵심에너지인 희토류(稀土類) 매장량은 전 세계 2위에 해당한다. 희토류란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첨단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원재료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폰, 자동차 배터리,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원료이다. 희토류 확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희토류 외에도 북한은 주요 광물자원들을 남한보다 23.9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함께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통일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 될 것이 틀림없다. 풍부한 광광자원을 보유한 것도 북한의 매력이다. 백두산, 금강산 등 천혜의

자원이 있고, 고구려와 평양의 옛 수도였던 개성과 평양이 있어 문화유적만 발굴, 복원하더라도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년 급속도로 감소한 탓에 전 세계에서 홍콩, 마카오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인구가 5000만명에서 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 영토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나 영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가 되고 G20에서 G8국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영토의 확대와 인구 증가로 풍부한 내수시장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복되면서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의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이산가족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조국이 분단되었다는 이유로 71년 동안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나라. 분단 71주년이 되어버린 이때, 살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일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적으로 앞서 있는 남한이 주도해야 할 것이

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1년 동안 분단이 되어버린 나라가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어느덧 북한과 언어,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고 표준시간마저 30분이라는 시차까지 있는 상황이다. 문화차이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 국민은 북한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북한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의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통일한국이 될 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강대국이 되며,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다.

빛고를 광주시민은 더욱 통일을 염원해야 하고, 특히 광주여성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북한을 보듬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야 할 것이다. 빛고을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처럼 사람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끌어 가는 빛고를 광주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기 고

‘호모 헨드레드의 역설’을 넘어서려면



문 혜 옥  
광주복지재단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최근 이애란의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칠십 세에...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팔십 세에...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백 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장수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이 워트있는 가사에 담겨, 요즘을 광고 문구의 맛을 맡은 모조리 이 노래 가사를 패러디한 ‘~라고 전해라’로 도배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라는 신조어도 덩달아 회자되고 있다. 2009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호모 헨드레드’란 용어는 인류가 대부분 100세 이상의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모두가 잘 알고있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단순히 고령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사회가 되면서 향후 10년 이후에는 100세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장수 추세는 3대 거짓말중 하나인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를 정말 거짓말로 만들어가고 있다. 30대의 희망수명이 81.9세, 40대의 희망수명은 83.7세인데 반해 50대는 85.7세로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대한민국 중산층보고서 2015). 실제로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 장수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로 눈을 돌리면 이러한 장수사회의 도래를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울한 전망을 즉 노령화지수 상승으로 인한 노인 부양의 부담,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심화, OECD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증가율 등등 백세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까지 여겨지는, 이른바 ‘호모 헨드레드의 역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노년들의 특수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은퇴자

들의 증가로 인해 들어갈 비용을 격정하며, 사회복지학자들은 노인부양대책 마련에 머리를 쥐어짜며 씨름하고 있다. ‘호모 헨드레드’를 핑크빛이 아닌 잿빛으로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경제, 취업, 주거문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수의 꿈이 실현됐음에도 장수를 재앙으로 여기는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호모 헨드레드의 역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그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전되면서 소위 ‘나이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지금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과 다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이용객들만 보아도 대부분 건강하고 인취적이며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지식을 기본으로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더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노인은 더이상 부양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물론 노인들도 공평을 요구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까지 보태 ‘사회에 기여하는 삶’으로의 발상 전환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친화사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노인일자리창출로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인의 자립을 지원해 고령화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에게도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고용과 주거해결 지원, 정년제 안착 등 정책이 마련돼야만 세대간 갈등과 가파른 노령화지수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다른 세대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다 연령의 감수성 체질’로 바뀌어야 하며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서비스 활성화 등 공동체 중심의 전반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가히 사회체계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호모 헨드레드라는 신인류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야 우리는 진정한 마음 편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세 넘어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社 說

조석래 회장 1심판결 IMF 상황 감안했어야

효성그룹 조석래(80)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법원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황령·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조 회장은 고령과 건강 상태 악화가 받아들여져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1238억 원 포탈 혐의다. ‘분식회계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채권단 압박으로 떠안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1970년대 수출경제 시기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정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효성 측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분식회계의 시초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너지 밸리 신산업 광주·전남 적극 협력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관련 신산업과 관련한 시·도 간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취지와 지역민이 바라는 ‘상생’에 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에너지밸리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사단은 최근 전남도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비해 광주시는 혁신도시와 가까운 남구 압촌동과 지석동 인근 도시 첨단산업단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결국 전남도의 이번 용역은 혁신도시 면적 33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광주시와는 별개의 사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산단에 전기연구

원 본원과 관련 기업 유치에 준비해 왔던 광주시는 이러한 연구기관의 입지를 놓고도 전남도와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신의 입맛에만 맞도록 따로 움직인다면 ‘상생’이 아닌 ‘상생’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유사한 프로젝트를 놓고 각종 인프라 지원에 따른 이중의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입주 기업들은 투자 조건과 전방을 따지느라 고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기 상대방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전체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 시도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각자의 특징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최고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봤다.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소멸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만큼 ‘도전과 응전’의 사례로 적합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겨 냈고, 시련기에도 고유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켰다는 점이 그렇다.

‘몽고 갑질’

문화의 변화를 기점으로 하면 한국사를 몽고 지배기 전과 후로 나누는 시각도 있다. 몽고는 7번의 침략 끝에 90년 간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몽고는 그만 큼 언어와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모든 면을 변화시켰다. 2부는 받았으나 고려 왕조가 바뀌지 않았고, 주체적인 문화를 유지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볼모 생활을 한 왕자가 몽고 왕의 사위가 돼서 고려 왕이 되는 등 수대에 걸쳐 지속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했다. 특히 아너자·아이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몽고군에 의해 유린했다는 점에

이 우물은 사실 오랜 세월 고려정이라 불렀다. 그런데 일본이 강점기인 1932년

조선 비하를 목적으로 몽고군으로 바뀌 부르도록 비석까지 세웠다. 우리나라 간장 업계의 원조 격인 몽고간장의 유래도 몽고정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상표 이름은 맘에 들지 않지만 몽고 간장이 전통음식을 지켜 왔다는 점은 높게 쳐 줄 만하다. 그런데 최근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이 윤전사 폭행·폭언으로 갑질 물의를 일으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갑질 물의를 우리의 아픈 역사까지 들춰내게 한 것 같아 씁쓸하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